

최근 經濟動向

이 규 철

I. 主要業種別 動向

◇ 自動車

지난 9월중 자동차 생산은 내수 증가세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와 북미지역 중심의 수출 증가세 지속과 르노에 인수된 삼성차의 정상가동으로 인하여 전년동월대비 10.9% 증가한 268천대에 달하였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와 상용차의 생산은 수출확대, 신차출시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2.1%, 5.1% 증가한 승용차 225천대, 상용차 38천대 수준이었으나, 전년동기대비의 증가세보다는 낮아 생산이 둔화되고 있는상태이며, 특히 승용차중 다목적형 생산은 북미중심의 수출 증가세 지속 등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43.2%나 증가하여 승용차 생산증가를 주도하였다.

내수판매는 LPG가격 인상과 유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욕구 축소로 전년동월 수준인 123천대를 기록하였다. 승용차는 디젤용 다목적형과 대형의 증가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및 LPG용 다목적형이 전년동월 대비 0.7% 감소한 88천대를 보였다. 특히, 중소형 및 LPG용 다목적형 승용차의 내수감소는 유가상승과 LPG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유지비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들의 구매욕구

축소가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반면 상대적으로 유지비가 저렴한 경형과 디젤용 다목적형이 전월에 비하여 증가세로 반전하였다. 또한 상용차는 전년동월대비 2.6% 증가한 35천대를 보였는데 이는 사회기반시설들의 건설 등에 따라 트럭의 수요가 전년동월대비 7.6%나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수출은 아시아의 급속한 경제회복, 주요 지역인 미국의 경기성장 지속에 따른 수요 증가와 국내 업체들의 다양한 신차출시 및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전년동기수준(12.2%)보다 높은 전년동월대비 20.0%나 증가한 149천대를 보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대형 및 다목적형의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동월 대비 20.1% 증가한 138천대, 버스와 트럭 등의 상

◆ 자동차 ◆

(단, %)

	1999.9월			2000.9월			2000.1~9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期比	
• 生産	241,305	8.0	17.9	267,666	△0.4	10.9	2,281,474	14.5
• 出荷	247,602	3.0	23.8	272,661	7.7	10.1	2,316,064	13.3
(內需)	123,303	13.7	59.4	123,533	△2.3	0.2	1,102,160	24.4
(輸出)	124,299	△5.9	1.4	149,128	17.8	20.0	1,213,904	12.2

자료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용차는 17.9% 증가한 11천대를 보였다. 지역 별로 보면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251.3%)에 대한 수출이 가장 높은 증가를 보인 것을 비롯하여 미국 등의 북미(68.2%) 및 중동(36.8%), 아프리카(76.0%), 태평양(55.6%) 등도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경제성장세가 둔화된 동유럽(△74.6%), 서유럽(△27.0%)에 대한 수출은 감소하였다.

◇ 電氣電子

9월중 전자제품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6.1% 증가한 5,656백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누계로는 전년동기대비 39.9% 증가하였다.

산업용 전자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7.4% 증가한 2,239백만달러에 달하였다. CDMA 및 GSM 이동전화기를 중심으로 한 무선통신기기 수출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저가 PC의 수출이 여전히 호조를 지속하였다. 무선통신기기는 전년동월대비 52.6%, 컴퓨터는 81.4% 증가하였으며, 유선통신기기는 23.6% 감소하였다.

전자부품은 반도체, 전자관, 수동부품, 기구부품 등 대부분이 수출 호조세를 지속하여 전년동월대비 44.6% 증가한 3,400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국내 전자부품 수출의 7割 정도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수출이 67.1% 증가한 것을 비롯, 전자관 21.4%, 수동부품 136.5% 기구부품 45.7% 등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였다.

가정용 전자 수출도 전년동월대비 15.0% 증가한 639백만달러에 달하였다. 영상기기 수출은 컬러TV가 10.7% 감소하였으나 VTR이 17.9% 증가한 결과 2.0% 증가하였다. 음향기기는 라디오카셋트가 137.6%나 증가한 것을 비롯, 컴포넌트도 호조를 보인 결과 60.8% 증가하였다. 가정용기기도 15.0% 증가하는 호조를 보였는데, 에어컨 등 가정용회전기기

가 부진을 보인 반면 전자렌지 등 난방기기는 호조를 보였다.

◆ 전 자 ◆

(百萬 달러, %)

	1999. 9월		2000. 9월		2000.1~9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輸 出	3,872	7.1	38.6	5,656	6.0	46.1	43,282	39.9
(産業用電子)	1,519	14.4	107.4	2,239	15.1	47.4	17,395	65.5
(電子部品)	2,351	2.7	14.1	3,400	0.7	44.6	25,887	26.7
(家庭用電子)	556	6.0	27.7	639	4.5	15.0	5,709	23.8

자료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 一般機械

9월중 生産은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금년 들어 그 증가율이 20~40% 선을 꾸준히 유지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지난 9월의 증가율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품목별로는 가공공작기계가 16.0%, 공기조절장치 등 냉동공조기계가 22.4%, 섬유기계가 8.8%, 건설·광산기계가 7.0% 증가했으나, 주요 품목 중에서 유일하게 농업용 기계가 24.1% 줄어들었다.

出荷는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했으나, 그 증가율은 역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공작기계가 19.7%, 냉동공조기계가 17.3% 증가했고, 건설기계는 0.5%, 섬유기계 10.4%, 농업용 기계 28.5% 각각 감소했다.

輸出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등 3대 시장에 대한 수출이 여전히 큰 폭의 증가를 보이며 전년 동월 대비 22.5%가 증가하였다. 품목별로는 건설·광산기계가 7.7%, 냉동공조기계 113.2%, 섬유기계가 32.4% 증가했으나, 공작기계와 농업용 기계가 각각 4.2%, 61.3% 감소했다.

輸入도 전년 동월 대비 30.4% 증가했다. 수

입비중이 40%에 이르는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여전히 크게 늘어나 41.4%나 증가했고, 이외에도 미국 37.5%, 독일은 68.3%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공작기계가 156.1%, 섬유기계 51.5%, 건설·광산기계가 109.1% 증가했지만, 주요 품목중 냉동공조기계와 농업용 기계가 각각 38.5%, 42.5% 감소했다. 이렇게 수입이 급증하면서 일반기계 부문의 무역적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월간 적자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9월중에만 무역적자가 2억달러이며, 누계로는 24억 달러에 이르렀다.

受注는 일반산업용기계가 전년 동월 대비 17.1% 감소한 252,181백만원, 특수산업용기계는 12.3% 감소한 109,798백만원이었다. 기종별로는 건설·광산기계가 31.1%, 금속공작기계가 5.2% 증가한 반면 농업용 기계가 14.6%, 섬유기계가 5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기계 수주동향 ◆

(백만원, %)

	1999. 9월		2000. 9월		2000.1~9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期比		
일반산업용	304.017	-	252.181	28.6	△17.1	2,231,573	△1.5
특수산업용	125.210	-	109.798	△30.7	△12.3	1,833,002	31.7

資料 : 통계청 KOSIS DATA, 기종별 신분류 체제 기준임

◇ 鐵鋼

9월중 粗鋼 生産은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한 3,487천M/T을 기록하였다. 이중轉爐 生産이 3.1% 증가한 2,036천M/T, 電氣爐 生産은 2.8% 증가한 1,451천M/T을 기록하였다. 9월중 세계 조강생산은 전월에 이어 독일, 스페인, 벨기에 등 유럽국가의 높은 생산증가율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5.2% 증가한 68,765천M/T을 기록하였으며, 일본·CIS 등 주요 철강국의 생산도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鐵鋼材 內需는 건설업의 경기침체 지속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 제조업의 호조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7.4% 증가한 3,131천M/T에 달했다. 條鋼類 내수는 棒鋼 및 철근의 호조로 10.3% 증가한 1,403천M/T을 기록하였으며, 관재류도 자동차, 선박, 家電 등의 활발한 생산활동으로 4.6% 증가한 1,680천M/T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내수 호조로 철강재 생산도 전년동월대비 2.6% 증가한 3,908천M/T을 기록하였다. 鐵鋼材 輸出은 전년동월대비 7.3% 증가한 589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품목별로는 열연강판(9월중 113백만달러, 전년동월대비 26.8% 증가), 철 구조물(23백만달러, 18.4%) 등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으나 봉강(22백만달러, 28.2%) 중후판(23백만, △16.2%)등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미국·중국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대만·홍콩 등 동아시아로의 수출은 감소하였다.

한편, 鐵鋼材 輸入은 전년동월대비 35.5% 증가한 582백만달러를 기록하여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중후판(9월중 33백만달러, 전년동월대비 84.6% 증가), 형강(11백만달러, 51.2%), 열연강판(126백만달러, 36.8%)등의 수입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나 아연도강판(6백만달러, △43.6%)은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 철 강 ◆

(百萬 달러, %)

	1999. 9월			2000. 9월			2000.1~9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期比		
조강생산	3,386	△1.1	6.9	3,487	6.2	3.0	32,091	6.6
내 수	2,915	△1.8	56.6	3,131	1.6	7.4	28,763	17.4
수 출	549	△21.7	△11.9	589	△8.5	7.3	5,839	16.0
수 입	430	△3.7	49.7	582	0.1	35.5	5,352	43.9

資料 : 한국철강협회

한국무역협회, KOTIS Data

◇ 非金屬鑛物

금년 9월 중 시멘트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5% 증가한 3,564천M/T을 기록하였으며, 전월대비로는 14.6% 감소하여 지난 6월이후 4개월째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3월 이후 최저치의 생산실적을 보였다. 업체별로는 쌍용양회가 909천M/T, 동양시멘트 623천M/T, 성신양회 492천M/T, 현대시멘트 379천M/T, 한일시멘트 321천M/T, 라파즈한라시멘트 357천M/T, 아세아시멘트 209천M/T 등의 생산실적을 보였다.

내수는 전년동월대비 1.4% 증가한 3,535천M/T을 기록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6.1% 감소하여 4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9월 중 계속된 雨期에 추석 연휴까지 겹쳐 수요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월까지의 내수도 33,976천M/T에 머물러 전년동기대비 7.0%에 그침으로써 지난달보다 0.7p 포인트 감소하였다.

수출은 전월보다 6.8% 증가한 313천M/T을 기록하여 지난달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11.4%의 큰 폭 증가세를 보이면서 5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따라서 9월까지 수출누계도 2,896천M/T으로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하여 전월보다 0.9p 포인트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최대 수출국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지난달보다 크게 감소한 120천M/T에 머물렀으며, 일본

으로의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115천M/T을 기록했다.

한편, 최근 들어 민간건축부문을 중심으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던 건설경기가 다소 주춤거리면서 건축허가면적이 전월보다 증가폭(39p포인트)이 크게 떨어져 전년동월대비 16.0%의 증가세에 그쳤다. 이와 함께 최근 일부 건설업체의 退出로건설경기가 다시 침체기미를 보이고 있어 시멘트 내수는 다시 어두운 전망이다.

◇ 石油化學

9월 중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영환경은 전월에 비해 뚜렷한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업체의 원가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油價 및 납사의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유가의 경우 미국의 전략비축유 방출이 구체화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향세를 보였으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두바이산 원유의 9월 평균가격은 29.95달러로 전월에 비해 2.90달러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유화제품의 기본원료인 납사의 가격 역시 톤당 323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전월에 비해 톤당 46달러의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합성수지 및 합섬원료 등을 생산하는 기초화학물 업체의 경우 원가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초유분 및 계열제품의 가격은 오히려 하락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국내 주요 업체의 경우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과 같은 기초유분 및 중간재를 비롯하여 고무, 수지, 합섬원료를 일괄 생산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이들 제품들의 수요가 부진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전반적인 출하의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이러한 수요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최대수요시장인 중국이 건국기념일에 따

◆ 비금속광물 ◆ (千M/T, %)

	1999. 9월		2000. 9월		2000. 1~9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期比			
· 生産	3,694	△7.8	△18.8	3,564	△14.6	△3.5	36,541	5.1
· 出荷	3,767	△5.5	△18.0	3,848	△5.2	2.2	36,872	6.7
(內需)	3,486	△3.8	△22.5	3,535	△6.1	1.4	33,976	7.0
(輸出)	281	△22.6	195.8	313	6.8	11.4	2,896	2.8

른 8일간의 휴무에 들어가면서 거래가 비교적 한산하였고 홍콩의 재고 역시 크게 증가하여 신규제품의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합성수지의 경우 제품별로 1~4%의 소폭 상승세를 보였는데 원가 상승률이 제품가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어 업계의 수익성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纖維

9월중 섬유 수출은 원료가 상승에 따른 수출 단가 인상 및 미국, 중국, 중남미, 동 섬유류 주요 수출국가들의 경기호조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6.0% 증가한 1,561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국내섬유류의 9월 수출액중 최고치인 1995년 9월의 1,524백만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섬유수출 전망을 밝게 한다.

수출물량은 전년동월대비 2.2% 증가한 29만톤을 기록하였으며 평균수출단가는 전년동월대비 3.7% 증가한 Kg당 5.27달러를 기록하였다.

품목별 수출실적을 보면 섬유원료는 폴리에스터 및 아크릴섬유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3.4% 증가한 71백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섬유사는 폴리에스터, 기타인조섬유사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0.5% 증가한 121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섬유직물은 혼방면직물, 폴리에스터직물, 편직물류 등의 수출증가로 전년동월대비 7.8% 증가한 822백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의류 중심의 纖維製品 輸出은 섬유제품 주 수출국인 미국, 일본으로의 직물제 의류 및 革衣類의 수출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9% 증가한 547백만달러 기록하였다.

국내 섬유류 주요수출 3국의 실적을 보면 중국(홍콩 포함)으로의 수출은 폴리에스터 직물과 함께 편직물류, 직물제 의류의 수출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4.3% 증가한 335백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미국으로의 수출은 편직물류, 직물제 및 혁의류의 수출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한 318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일본으로의 수출은 직물제 의류의 수출감소로 전년동월대비 1.2% 감소한 135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輸入은 수출증가로 인한 원자재 수입증가와 함께 중국, 인도 등 후발개도국으로 부터 저가의 섬유사, 직물류 및 의류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섬유선진국으로부터 고급 의류제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8.8% 증가한 409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 섬유수출 ◆

(百萬달러, %)

	1999. 9월			2000. 9월			2000. 1~9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原 科	69	12.9	11.3	71	0.4	3.4	648	27.8
絲	109	△1.8	6.3	121	△3.2	10.5	1,197	14.7
織 物	763	△8.4	1.3	822	2.2	7.8	7,523	14.6
衣 類	532	0.2	△0.3	547	△7.2	2.9	4,621	8.1
計	1,473	4.7	0.5	1,561	△1.8	6.0	13,989	12.9

◇ 造船

2000년 3/4분기중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량은 전량 수출선으로 전년동기대비 25.9% 증가한 67척 209만CGT를 기록하였는데, 전분기 수주 실적인 609만CGT에 비해서는 48.8% 감소하였다. 3/4분기 수주량이 전분기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은 국내 조선업체들의 수주잔량이 2년 6개월~3년에 달하고 있어 인도시기를 고려한 국내 조선업체들의 선별수주가 주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었다.

2000년 3/4분기 건조량은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한 41척 132만CGT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생산성 향상, 삼호중공업 등 구조조정중인 일부 조선소의 본격 가동 등에 힘입어 컨테이너선 등의 건조가 지속되었기 때문이

다. 2000년 9월말 수주잔량은 전년동기대비 59.2% 증가한 509척 1,642만CGT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도말 수주잔량인 1,243만 CGT을 초과한 것으로 현대, 삼성, 대우 등 국내 대형 조선소들은 최대 3년 정도의 조업량을 확보한 것이다.

◆ 조 선 ◆
(千G/T, %)

	1999. 9월(연간)		2000. 9월(3/4분기)			2000. 1~9	
		前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受注	1,656(6,605)	66.7	2,086	△48.8	25.9	8,679	268.4
建造	1,291(4,963)	9.8	1,321	△25.5	2.4	4,588	119.9
受注殘量	10,314(12,430)	△0.1	16,415	4.3	59.2	16,415	159.2

주 : 한국조선공업협회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급증은 세계 신조선 수요 증가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세계 신조선 수주량은 1999년 1,899만CGT을 기록, 1998년 대비 약 1%의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금년 상반기에만 1,621만 CGT의 수주량을 기록하여 1999년 연간수주량의 85.4%에 육박하였다.

금년 들어 세계 신조선 발주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99년 이후 세계경제 활동의 호조 및 아시아 지역의 경기회복 등으로 인한 해상물동량 증가에 따른 해운시황의 호전, 낮은 선가에 따른 조기발주물량의 증가, 천연가스 수요 증가로 인한 LNG선 발주물량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세계 신조선 발주 증가는 거의 전선종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VLCC의 경우 노후선에 대한 대체수요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02년까지 25년 이상된 VLCC는 188척으로 이미 발주된 90여척을 제외할 경우 약 100여척이 추가로 발주될 것으로 전망된다.

컨테이너선은 90년대 들어 3,000~5,000TEU급 이상의 대형 위주로 발주되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세계경제 호조,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인한 교역량 증가로 4,000TEU급 컨테이너선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유조선 이중선체(double hull) 규제강화(2001년 4월 최종 확정 예정)로 인해 조기 해체물량의 증가가 예상되어 국내 조선업체의 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단일선체 유조선을 3가지 카테고리(1, 2, 3)로 분류하여 각 카테고리별로 선령 25년을 기준으로 2003년부터 2015년(Scheme A), 2003년부터 2017년까지(Scheme B) 단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제1카테고리에는 Pre-MARPOL 탱커로 1982년 6월 이전에 인도된 20,000DWT 이상의 유조선, 제2카테고리에는 MARPOL 탱커로 1982년 6월 이후 1996년 7월 이전에 인도된 20,000DWT 이상의 유조선, 제3카테고리에는 제1, 2카테고리에서 규정된 선박규모 이하이면서 5,000DWT이상의 유조선이 해당된다. 규제안에 따르면, 2005년 까지 해체될 선박은 917척 71,318천DWT에 달하며, 2007년까지는 1,323척 99,858천DWT으로 연평균 265척 19,972천DW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17년까지 해체될 선박은 총 2,336척 192,703천DW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연평균 156척 12,847천DWT로 이는 금년 8월말 현재 탱커선복량(3,407척 289,800천DWT)의 5%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현 선복량의 5%정도가 조기 해체되기 때문에 현재의 세계 조선산업의 수주호황 추세를 지속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99년 세계1위를 차지한 이후 금년 들어서는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50% 이상을 넘고 있는데 내년에 이중선체규제가 발효될 경우 수주 호조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규제로 인해 300,000DWT급 이상의 VLCC가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VLCC도크 7기를 보유하고 있고, 99년 이후 일본에 비해 유조선 부문 수주에서 강세를 보여온 국내 조선업체들의 수주 강세가 예상된다.

◇ 海運

9월중 乾貨物運賃指數 MRI(월평균)는 전월의 253.3에서 10.3포인트 상승한 263.6을 나타내어 금년 들어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석탄물동량 증가, 철광석 및 곡물 수송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서양 수역을 중심으로 건화물 운임은 강세를 보였다.

Capesize급은 월 중순 극동지역의 연휴기간에 따른 용선계약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항로에서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대서양 수역에서는 석탄 물동량 증가로 강보합세를 유지하였다.

Panamax급은 월중순부터 하순까지 대서양 및 극동 수역에서 동절기 철광석 및 곡물 수송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유지하였다.

9월중 탱커 운임지수 WS(World Scale)는 월평균 전월의 114.8보다 25.1포인트나 상승한 139.9로 전월에 이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탱커시황의 호조는 고유가로 인한 원유수요 증가, 용선주들의 신형선 수요증가로 인해 선복량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VLCC급을 중심으로 운임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VLCC 운임은 월중순 용선거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복공급의 확대에 의해 약세를 보였으나, 9월 하순 들어 용선거래가 크게 증가하

여 강세로 전환되었다.

Suezmax선 운임은 중순까지는 수급의 균형으로 큰 변동이 없었으나 대서양 수역서는 성약거래의 증가로 강세를 보였으며 하순 들어서는 선복공급의 부족과 대서양 수역의 용선거래 증가세 지속으로 강세를 유지하였다.

향후 운임은 VLCC 중심의 선복량 부족 현상의 지속과 고유가에 따른 원유 물동량 증가로 대형 탱커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Ⅱ. 對外去來

1. 輸出

9월중 수출은 152.4억달러로 경공업제품의 수출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중화학공업제품 수출 증가세가 지속(8월 : 32.1%→9월 : 32.0%)됨에 따라 증가율이 전월(30.4%)보다 다소 축소된 27.3%로 상승하였다.

9월중 品目別 수출을 살펴보면 經工業製品은 타이어·튜브(△14.9%), 종이류(△8.4%)등이 부진하였으나, 직물(4.8%), 섬유사(10.7%)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증가율이 전년동월비 4.8% 증가한 24.8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중화학공업제품은 정보통신기기(85.4%), 전기전자기기(50.3%), 반도체(30.8%), 화공품(24.8%), 자동차(36.5%) 등 거의 전 품목에서 수출호조가 지속되어 전

對 外 去 來

(억달러, 前年同期比, %)

	98年	99年	2000.8月	9月	10月
· 通關輸出 (增減率)	1,323.1 (△2.8)	1,436.9 (8.6)	148.3 (30.4)	152.4 (27.3)	155.8 (15.8)
· 通關輸入 (增減率)	932.8 (△35.5)	1,197.5 (28.4)	134.2 (36.2)	132.8 (31.1)	141.3 (24.4)
· 輸出入差	390.3	239.3	14.0	19.6	14.5

주 : ()는 전년동기비 증감율, %

品目別輸出

(通關基準, 억달러)

	99. 9月	99. 1~9月	2000. 8月	9月	2000. 1~9月
全體輸出	119.7 (11.3)	1,010.8 (3.6)	148.3 (30.4)	152.4 (27.3)	1,272.8 (30.9)
重化學工業製品	86.9 (17.0)	717.1 (10.3)	109.1 (32.1)	114.7 (30.0)	939.0 (30.9)
化 工 品	8.7 (19.4)	66.4 (△2.1)	10.4 (32.7)	10.8 (24.8)	91.4 (37.6)
鐵鋼 및 金屬製品	8.2 (△7.1)	75.5 (△12.1)	9.4 (△2.3)	9.2 (11.5)	86.3 (14.2)
機械類와 精密機器	10.0 (10.1)	84.3 (14.8)	9.9 (11.8)	10.4 (3.5)	88.1 (4.5)
電氣電子製品	39.4 (36.6)	313.9 (26.4)	55.5 (50.2)	59.2 (50.3)	459.7 (46.5)
(家電製品)	5.0 (29.5)	41.5 (11.3)	5.5 (16.3)	5.8 (16.2)	53.8 (29.6)
(半 導 體)	15.8 (10.8)	136.6 (13.0)	20.3 (31.8)	20.6 (30.8)	158.8 (16.2)
(情報通信機器)	14.9 (103.5)	103.6 (63.6)	24.6 (87.4)	27.6 (85.4)	205.5 (98.2)
乘 用 車	7.8 (11.3)	66.7 (24.0)	8.9 (9.6)	10.6 (36.5)	77.5 (16.1)
輕 工 業 製 品	23.7 (△8.8)	221.5 (△11.0)	25.6 (15.4)	24.8 (4.8)	229.5 (3.6)
織 維 絲	1.1 (△5.6)	10.3 (△13.0)	1.2 (11.9)	1.2 (10.7)	11.9 (15.2)
織 物	6.6 (△0.6)	58.1 (△5.4)	6.9 (11.2)	7.0 (4.8)	64.9 (11.6)
衣 類	4.6 (△1.2)	36.3 (2.5)	5.0 (9.7)	4.7 (1.8)	38.6 (6.2)
타 이 어 · 튜브	1.2 (△0.9)	11.1 (△5.2)	1.1 (2.4)	1.0 (△14.9)	10.7 (△4.2)
금	0.9 (△74.6)	25.8 (△50.1)	1.4 (134.5)	1.2 (31.7)	11.7 (△54.8)
증 이 류	1.4 (7.2)	12.8 (3.1)	1.5 (11.7)	1.3 (△8.4)	14.8 (15.2)

註)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品目別輸入

(通關基準, 억달러)

	99. 9月	99. 1~9月	2000. 8月	9月	2000. 1~9月
全體輸入	101.3 (39.6)	840.9 (22.5)	134.2 (36.2)	132.8 (31.1)	1,189.6 (41.5)
原 資 材	48.9 (42.6)	396.8 (16.1)	61.9 (29.4)	64.4 (31.5)	579.1 (45.9)
原 油	14.0 (84.5)	94.3 (12.4)	17.7 (48.1)	21.4 (52.9)	179.8 (90.7)
輕 工 業 原 料	3.3 (11.5)	30.2 (7.0)	4.0 (20.2)	3.6 (8.9)	36.4 (20.6)
化 工 品	7.8 (23.8)	69.6 (17.0)	10.1 (26.4)	9.6 (22.8)	87.9 (26.2)
鐵 鋼 材	3.8 (54.9)	32.7 (25.0)	4.9 (20.3)	5.2 (34.9)	46.4 (42.0)
資 本 財	41.7 (48.7)	339.0 (33.3)	57.8 (41.9)	55.2 (32.4)	492.5 (45.3)
機械類와 精密機器	11.9 (48.2)	93.5 (20.9)	16.5 (56.1)	14.9 (25.3)	140.8 (50.6)
電氣電子製品	27.1 (47.7)	222.3 (43.9)	38.2 (41.0)	37.4 (38.2)	322.7 (45.2)
(半 導 體)	13.4 (26.5)	116.6 (33.3)	17.4 (25.1)	17.4 (29.4)	144.4 (23.9)
(情報通信機器)	6.1 (101.7)	46.0 (90.4)	10.8 (80.5)	10.2 (66.4)	94.4 (105.3)
消 費 財	10.6 (4.5)	105.0 (16.1)	14.6 (45.5)	13.2 (24.4)	118.0 (12.4)
穀 物	1.8 (△2.1)	16.9 (△13.7)	2.0 (9.4)	1.9 (8.4)	17.7 (4.9)
直 接 消 費 財	3.2 (40.5)	26.1 (56.9)	4.2 (45.5)	3.6 (14.8)	34.3 (31.3)
耐 久 消 費 財	4.0 (△22.1)	50.7 (10.8)	5.7 (58.0)	5.2 (28.2)	47.4 (△6.4)
(金)	1.5 (△55.7)	29.0 (△2.7)	2.1 (85.7)	1.8 (23.1)	17.1 (△41.0)
(家電製品)	0.6 (61.8)	4.7 (37.5)	1.0 (71.7)	0.9 (66.9)	8.2 (75.9)
非 耐 久 消 費 財	1.6 (83.7)	11.3 (34.8)	2.8 (57.8)	2.5 (51.4)	18.6 (64.3)

註)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년 동월비 32.0% 증가한 114.7억달러를 기록하였다.

10월은 반도체 및 컴퓨터 등 주요수출품목의 호조 및 환율안정 등으로 전년동월비 15.8% 증가한 155.8억달러를 기록하여 월간 규모로는 사상최대치를 갱신하였다. 다만 수출증가율은 전년동월의 높은 증가율(26.5%)에 따른 상대적 영향으로 둔화세를 보였다.

2. 輸入

9월중 輸入은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 및 국내외 수요증대로 원자재(31.5%), 자본재(32.4%) 및 소비재(24.4%) 수입이 모두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1.1% 증가한 132.8억달러를 기록하였다.

9월중 品目別 수입을 살펴보면 消費財는 비내구소비재(51.4%), 내구소비재(28.2%) 및 직접소비재(14.8%) 등 대부분 품목의 수입이 늘어나 전년동월비 24.4% 증가한 13.2억달러를 기록하였다.

原資材는 國際原油價 상승지속으로 原油輸入(52.9%)의 증가세가 지속된 데다 철강재(34.9%)와 화공품(22.8%) 등의 주요 원자재 수입도 증가하여 전년동월비 31.5% 증가한 64.4억달러

地域別輸出入

(通關基準, 억달러)

		99.9月	99.1~9月	2000.8月	9月	2000.1~9月
先進國	輸出 (增減率)	61.0 (18.0)	505.7 (8.5)	73.5 (33.1)	80.2 (31.5)	644.4 (27.4)
	輸入 (增減率)	58.6 (29.0)	507.0 (20.5)	77.0 (32.4)	71.4 (21.7)	661.6 (30.5)
	輸出入差	2.4	△1.3	△3.5	8.8	△17.1
美國	輸出 (增減率)	25.3 (29.0)	204.9 (22.7)	32.7 (37.8)	35.2 (39.0)	272.3 (32.9)
	輸入 (增減率)	20.0 (15.1)	182.7 (21.5)	26.5 (28.4)	24.1 (20.6)	222.4 (21.7)
	輸出入差	5.3	22.3	6.2	11.0	49.9
日本	輸出 (增減率)	13.8 (43.4)	105.8 (19.2)	16.9 (41.2)	19.5 (40.9)	150.4 (42.2)
	輸入 (增減率)	21.1 (57.1)	165.0 (34.3)	26.9 (38.3)	26.1 (24.0)	238.6 (44.6)
	輸出入差	△7.3	△59.2	△10.0	△6.7	△88.2
EU	輸出 (增減率)	16.9 (9.0)	140.0 (8.8)	17.7 (17.9)	19.0 (12.6)	168.6 (20.4)
	輸入 (增減率)	10.5 (30.1)	91.1 (10.0)	14.5 (34.9)	13.6 (30.0)	120.4 (32.2)
	輸出入差	6.4	48.9	3.2	5.4	48.2
開發國	輸出 (增減率)	58.7 (5.1)	505.1 (△0.9)	74.8 (27.8)	72.1 (23.0)	628.3 (24.4)
	輸入 (增減率)	42.6 (57.4)	333.9 (25.6)	57.3 (41.7)	61.4 (44.1)	528.1 (58.2)
	輸出入差	16.0	171.3	17.5	10.7	100.3
東南亞	輸出 (增減率)	27.6 (11.2)	234.4 (6.2)	35.1 (33.8)	34.3 (24.5)	293.4 (25.2)
	輸入 (增減率)	13.6 (50.9)	111.3 (35.2)	19.0 (48.0)	19.2 (41.0)	177.4 (59.5)
	輸出入差	13.9	123.2	16.0	15.1	116.0
中國	輸出 (增減率)	11.4 (23.9)	96.6 (9.0)	17.0 (56.4)	16.0 (40.5)	135.9 (40.8)
	輸入 (增減率)	8.1 (59.3)	61.1 (25.6)	11.0 (45.7)	10.8 (33.9)	93.8 (53.4)
	輸出入差	3.3	35.4	6.0	5.2	42.2
中東	輸出 (增減率)	5.5 (△5.2)	45.6 (△6.9)	6.1 (25.7)	6.5 (18.0)	56.5 (23.9)
	輸入 (增減率)	15.3 (95.5)	94.4 (11.5)	18.4 (52.7)	22.7 (48.0)	181.2 (91.9)
	輸出入差	△9.8	△48.8	△12.3	△16.2	△124.7
中南美	輸出 (增減率)	6.6 (△17.6)	60.6 (△8.9)	9.3 (38.8)	8.3 (25.4)	71.2 (17.5)
	輸入 (增減率)	2.1 (18.7)	20.8 (22.8)	33. (25.6)	2.7 (31.0)	24.6 (18.1)
	輸出入差	4.5	39.7	6.0	5.6	46.6

주)()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를 기록하였다.

자본재는 정보통신기기(66.4%), 정밀기기(25.3%), 반도체(29.4%) 등을 중심으로 높은 수입증가세가 지속되어 전년동월비 32.4% 증가한 55.2억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10월중 수입은 국내경기 둔화로 수입의 증가세가 완화되어 금년들어 최저수준인 전년동기대비 24.4% 증가한 141.3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3. 地域別 輸出入

9월중 對선진국 수출은 미국(39.0%), 일본(40.9%), EU(12.6%) 등에 대한 수출 증가로 전년동월비 31.5% 증가한 80.2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對개도국 수출은 동남아(24.5%) 등에 대한 수출증가세가 둔화되어 전년동월비 23.0% 증가한 72.1억달러를 기록하였다.

地域別 輸入을 살펴보면 對先進國 輸入은 미국(20.6%), 일본(24.0%), EU(30.0%) 등에서 수입증가세가 둔화되어 전년동월비 21.7% 증가한 71.4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對개도국 수입도 동남아(41.0%), 중국(33.9%), 중동(48.0%) 등에서 증가세가 둔화되어 전년동월비 44.1% 증가한 61.4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지역별 수출입차는 대일교역은 무역적자가 축소(△10.0억달러→△6.7억달러)되었고, 미국(6.2억달러→11.0억달러), EU(3.2억달러→5.4억달러) 교역에서는 흑자폭이 확대되었다. 또한 중동교역은 원유수입증가 등

의 영향으로 지난달에 이어 적자(△12.3억달러→△16.2억달러)가 확대되었고, 동남아(16.0억달러→15.1억달러), 중국(6.0억달러→5.2억달러)교역에서는 흑자규모가 축소되었다.

4. 國際收支

경상수지는 9월중 18.2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흑자규모가 전월(9.4억달러)보다 8.8억달러 확대되었으며 1~9월중 누계로 77.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商品收支는 무역수지의 호조로 99. 10월(26.2억달러) 이후 가장 큰 규모인 24.6억달러의 흑자를 시현하였으며 1~9월중 상품수지는 127.6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서비스수지는 하계휴가철 종료에 따른 내국인 해외여행경비지급의 감소로 여행수지 적자규모 축소 및 특허료·사업건설팅료 지급에 따른 기타서비스수지회복 등의 영향으로 적자규모가 전월의 △6.9억달러에서 △2.9억달러로 대폭 축소되었다.

소득수지는 분기말월의 대외이자 지급증가로 적자규모가 전월의 1.0억달러에서 3.6억달러로 확대되었다.

9월중 資本收支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유출등으로 9.0억달러의 유출초를 기록하였으며, 1~9월중에는 130.8억달러의 유입초를

國 際 收 支

(억달러)

	99. 9月	99. 1~9月	99年間	2000. 8月	9月pJ	2000. 1~9月
經 常 收 支	21.7	188.0	244.8	9.4	18.2	77.3
商 品 收 支	25.9	215.9	283.7	18.3	24.6	127.6
서 비 스 收 支	△1.8	△4.8	△6.5	△6.9	△2.9	△34.7
所 得 收 支	△3.7	△38.7	△51.6	△1.0	△3.6	△17.6
經 常 移 轉 收 支	1.2	15.5	19.2	△1.1	0.0	2.0

註)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시현하였다. 내국인투자의 경우 해외단기채 매입 및 외화대출금회수 등으로 18.9억달러의 유입초를 시현한 반면, 외국인 투자의 경우는 외국인 직접투자자금의 유입호조에 불구하고 자산관리공사의 대우채권상환과 예금은행의 해외단기차입금 상환 등으로 27.7억달러의

유출초를 기록하였다.

形態別로는 직접투자는 6.7억달러의 순유입을 나타내었으나, 증권투자와 기타투자는 각각 12.3억달러와 3.3억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하였다.

資 本 收 支

(억달러)

		99. 9月	99. 1~9月	2000. 8月	9月p ₁	2000. 1~9月
資 本 收 支 (A + B)		△18.7	△40.3	1.9	△9.0	130.8
A. 投 資 收 支		△18.4	△37.1	2.1	△8.8	133.1
形 態 別	直 接 投 資	△0.2	34.1	△3.2	6.7	21.7
	證 券 投 資	5.7	37.6	14.5	△12.3	107.6
	其 他 投 資	△23.9	△108.8	△9.3	△3.3	3.8
主 體 別	資 產 (內 國 人 投 資)	0.6	△59.2	3.7	18.9	△71.1
	直 接 投 資	△3.2	△25.6	△1.9	△1.5	△41.3
	證 券 投 資	7.7	10.2	3.5	△1.8	△2.4
	其 他 投 資	△3.9	△43.8	2.1	22.2	△27.4
	負 債 (外 國 人 投 資)	△19.0	22.1	△1.6	△27.2	204.2
	直 接 投 資	3.1	59.7	△1.3	8.3	63.0
	證 券 投 資	△2.1	27.4	11.1	△10.5	110.1
其 他 投 資	△20.0	△65.0	△11.4	△25.5	31.2	
B. 其 他 資 本 收 支 [資 本 移 轉]		△0.3	△3.2	△0.2	△0.2	△2.4